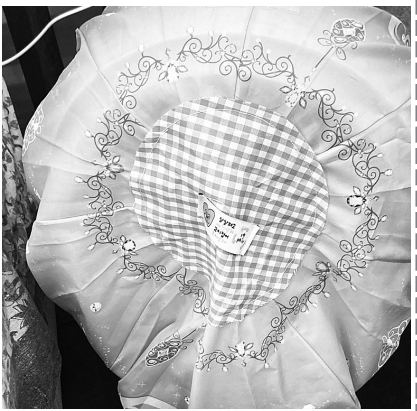




한걸음 가게에서 열린 우산리페어 워크숍에서는 낡은 우산천을 활용, 선풍기 커버와 가방 커버를 만들었다.



문화기획사 라우·유어스텝
‘한 번 더’ 프로젝트
찾아가는 수리소



‘헌 우산 주변 선풍기 커버 줄게.’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자원순화실협실 한걸음 가게에서는 흥미로운 리사이클링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일보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문화기획사 라우, 유어스텝과 함께 진행하는 ‘쓰레기 없는 지역 행사 만들기-한 번 더’ 캠페인 중 하나다.

‘찾아가는 수리소’ 첫번째 행사의 주인공은 어느 가정에도 한 두개씩은 있는 고장난 우산으로 살이 부러지거나, 꼭지가 떨어져 나간 우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리상점 굿손 소속 호우호우 우산수리점의 해몽과 선정이 강사로 나섰다. 우산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과 달리 우산천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버리면 모두 소각 쓰레기가 된다.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셈. 호우호우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우산천으로 팔토시, 예코백, 텀블러백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는 우산천을 활용해 선풍기 커버를 제작했

우산살·꼭지 분리해 가방·선풍기 커버로 간단한 수리 스스로 ‘셀프 수리존’도 운영

다. 참가자들은 먼저 주최측이 준비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온 우산을 일일이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팬치와 집게 등으로 세심하게 우산살과 꼭지 등을 분해하고 난 후 우산천의 재봉작업을 거쳐 작품을 만들어갔다. 완성작에는 ‘리페어 제품’임을 알리는 표식과 ‘살살 펴고 바싹 말려 고이 접어 오래 오래’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을 부착했다.

새롭게 탄생한 제품은 선풍기 커버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오는 날 가방 커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들여 제거한 각종 우산 부품들은 모두 우산수리하는 데 귀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행사장 한 쪽에서는 우산 셀프 수리존도 운영됐다. 손잡이 교체, 끈적이 제거, 우산 꼭지 교체, 묶음끈 바느질 등 간단한 수리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배려했고 수리 전문가 직접 코칭을 해주기도 했다.

백설공주가 그려진 캐릭터 우산을 가져온 유현옥씨는 “15년도 더 전 딸아이가 아꼈던 우산인데 나들이에 쓰지 않

게 돼 그냥 집에 방치돼 있었다”며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 변신하는 것도 흥미롭고, 그냥 버려졌을 물건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푸른색의 오래된 우산을 멋진 선풍기 커버로 변신시킨 이 아승씨는 “고장난 우산을 고쳐 쓴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버려 왔다”며 “이번 우산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진행한 굿손의 해몽은 “우산천은 버려지면 모두 소각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천 자체를 모두 소비해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얻게 된 우산 부품 역시 각각의 쓰임을 갖고 우산, 양산 등을 고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장터와 플리마켓 등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행사를 위해 제작한 ‘한 번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수리소도 꾸준히 진행한다. 또 쓰레기 없는 행사를 고민하는 행사 기획팀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며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구, 쪽방촌 거주민들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착한 나눔 바우처’·‘기후대피소 쿠폰’... ‘쪽빛 상담소’ 쉽터로 운영

광주시 동구는 폭염 속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여름나기를 위해 ‘착한 나눔 바우처’와 ‘기후대피소 쿠폰’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쪽방촌 거주민에게 바우처, 쿠폰 등을 제공해 왔다. ‘착한 나눔 바우처’는 식료품, 생필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한 종이 쿠폰 형태로, 쪽방촌 거주민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기후대피소 쿠폰’은 폭염 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거주민들이 지정된 목욕탕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목욕탕 이용권 형태로 1인당 10매씩 제공된다.

착한 나눔 바우처는 지정가게 16곳에서 사용할 수 있

으며 기후대피소(목욕탕)는 1곳이 운영된다.

동구는 또 쪽방촌 거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쪽빛 상담소’를 무더위 쉽터로 운영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광주주거복지센터가 기부한 기후재난 폭염 대응 키트 12종 세트(쿨매트, 베개 세트, 냉각 선풍기, 부채, 식염 포도당 등), 선풍기도 각각 쪽방 거주민 40세대에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영산강유역청, 의료폐기물 특별 감시...8월까지 종합병원 등 15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무더위 속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의료폐기물 특별 감시에 나선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까지 광주·전남 지역 의료폐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15곳이다.

냉장 설비 조작동,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미흡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출자와 처리업체 모두가 책임감 있게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청은 지난 2014년부터 관내 종합병원과 자율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제도 개정사항을 공유하며 대형병원, 중소병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의료폐기물 취급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국정과제 채택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서 내고 정부에 촉구
한빛 1,2호기 103건 사고
5호기 봉산 누출 등 불안

광주·전남 환경 운동 단체가 최근 봉산수 누출 사고를 겪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국정과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영광에 위치한 한빛 핵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부품 모조품 사용 사건 축소·은폐 확산 및 봉산 누출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광 한빛 1, 2호기에서는 총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격납 건물 철관 부식, 내진 부실 시공, 제어봉 조작 오류 등 중대한 기술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한빛 핵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중 모조 베어링이 현장에 395개나 교체·설치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5호기에서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서 봉산이 누출되는 등 지역 주

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러한 명백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핵발전소의 안전을 그쳐 ‘천운’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국정기획위는 더 늦기 전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을 국정과제로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에 있는 한빛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는 현재 제20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해 오는 8월 말 발전 재개 예정이다. 한빛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9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수명연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한빛원전 5호기 정비 후 시험 가압 과정에서 원자로 헤드 상단 제어봉 구동장치 하단 접합부에서 봉산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